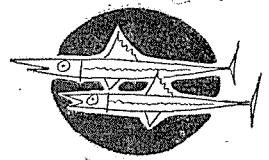


# 魚類의 生態



農學博士 鄭 文 基

現在 世界의 陸水와 五大洋을 合해서 發表된 魚類의 種類는 約二萬種에 達하고 있는데 그중 357種이 우리나라에서 發見되어 있습니다. 魚類의 生活史 研究는 긴 歷史를 가지고 있지만 最近 미국 영국 日本을 비롯하여 世界의 여러나라가 이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理由는 過去에는 自然번식한 魚類를 잡아 왔지만 日本의 잡는 漁業이 發達된 이래 至今은 漁類의 資源이 漸漸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無盡藏이라고 불리우던 고래도 점점 그 자원이 줄어들어서 世界포경協會는 年間에 잡는 고래의 수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래 고래잡이는 노르웨이 國이 首位였고 그 다음이 日本, 朝鮮, 미국의 순위였는데 고래의 자원이 줄어든 지금 북노르웨이는 그 포경선을 전부 팔아 버렸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Tuna 우리말로 方語가 약 十餘種이 있는데 이것도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미국이 日本과 협정하여 大量으로 이를 어획한 결과 현재 그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今後의 漁業은 自然資源에만 依存할 수는 없기 때문에 人工번식의 문제가 世界적으로 클로스-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年前부터 漁業政策을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스토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기르는 漁業」이 成功하기 위하여는 魚類의 生活史와 그 生態가 연구되어야 할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자가 극히 소수이어서 解放以後 한 種類의 漁類도 그 生活史가 연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日本 미국등 外國學者들이 연구한 결과를 이용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生態의 연구는 自由陣營 국가보다도 朝鮮이 銳치를 올리고 있는것이 注目된다.

魚類의 生活史 연구는 한종류만 연구하더라도 이를 양식하는 産業이 일어 날수 있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方面의 연구자를 育成했어야 할 것인데 解放이후 20여년間 이의 연구자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例를 들어 설명코자 하는 銀魚의 生活史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30여년전에 日本學者가 10年을 걸려서 연구한 것이다. 「은어」는 日本말로 「아유」라고 불리우는 「淡火魚」인데 겨울에는 그 稚魚가 河口 즉 바다와의 接境에 약간 염분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解冬이 되면 江의 上流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初期에는 動物性 플랑크톤을 먹고 살지만 점점 자라서 10cm 內外가 되면서 부터는 一生을 植物性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 갑니다.

銀魚가 移動할때는 약 萬마리가 떼를 지어서 于先 斥候兵이 그곳에 약 일주일분의 食량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또 그 지역에 自己들과 같은 먹이를 먹는 魚類가 있을 때에는 全員이 生死를 걸고 싸워서 이들을 몰아내는 反面에 자기들과 먹이를 달리는 魚族과는 서로 도와서 共存하게 됩니다. 먹이가 다 떨어지면 또다시 좋은곳을 찾아서 上流로 이동합니다. 가을철 山에 단풍이 들 무렵이 되면 產卵期를 맞이한 은어떼 들은 24시간 이내에 產卵場인 河口로 急行한다. 產卵場으로는 河口江邊 水流가 극히 미약하고 밑에는 가는 모래와 자갈이 약간 섞여있는 곳을 擇합니다. 이런곳을 암늪이 선택하고 숫늪이 이를 도와서